

Meritz 통신서비스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정지수
02. 6454-4863
jisoo.jeong@meritz.co.kr

2022.1.10

1 주가 현황

	수익률(%)				PER(x)		PBR(x)		배당수익률(%)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1W	1M	3M	6M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KOSPI	-0.8	-1.8	-0.0	-8.2	10.7	10.7	1.1	1.1	1.8	1.8	<p>SK텔레콤 KT LG유플러스</p> <p>SKT 44.8% (+0.2%p WoW, +1.3%p MoM) KT 43.6% (-0.1%p WoW, +0.2%p MoM) LGU+ 35.3% (+0.1%p WoW, +0.5%p MoM) SKT, LGU+ 외국인 지분율 상승세 지속</p>
통신업종	-1.6	-0.8	-2.5	-6.3	6.0	6.0	0.5	0.5	6.0	6.0	
SK텔레콤	-2.6	2.4	7.4	3.1	4.8	5.1	0.5	0.5	5.7	6.8	
KT	-1.1	-1.6	-3.5	-6.9	7.7	7.3	0.5	0.5	5.5	6.0	
LG유플러스	-0.4	-2.5	-6.2	-7.2	8.0	7.3	0.8	0.7	4.2	4.8	
AT&T	6.9	13.9	-3.0	-9.1	7.8	8.4	1.1	1.0	7.9	7.3	
Verizon	4.4	6.8	0.6	-4.1	10.1	10.1	2.8	2.4	4.7	4.8	
T-Mobile	-5.4	-6.3	-10.9	-25.9	48.1	35.6	2.0	1.9	0.0	0.0	
NTT	5.4	5.7	5.6	15.9	13.2	10.4	1.5	1.4	3.2	3.4	
KDDI	5.2	5.3	-4.0	1.7	12.4	11.9	1.7	1.6	3.4	3.5	
Softbank	2.5	-0.1	-10.3	-25.6	2.4	9.5	1.2	0.8	0.8	0.9	
China Mobile	6.2	6.7	2.9	6.2	7.3	6.9	0.7	0.7	7.5	8.2	
China Unicom	3.3	4.9	0.2	-2.2	6.7	6.2	0.3	0.3	7.9	9.4	
China Telecom	6.5	9.9	3.0	0.4	7.6	7.4	0.5	0.5	7.9	8.9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2 업종 코멘트

전주 동향

1월 첫째주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KOSPI 대비 -0.8%p 수익률 기록하며 Underperform
3.4GHz 대역 5G 주파수 20MHz 폭 최저 경매가격 1,355억원으로 책정
美 통신사들(AT&T, Verizon), 항공사들과의 논쟁끝에 5G서비스 출시 2주 연기
국내 기관은 통신 3사 순매도. 외국인인 SKT, LGU+ 순매수, KT 순매도

금주 전망

금주는 특별한 이벤트가 부재
9일 SK텔레콤은 SK스퀘어, SK하이닉스와 ICT 연합을 출범해 1조원 이상의 글로벌 투자 계획 발표
첫번째 행보로 3사가 500억원을 공동 출자해 사피온 미국법인 설립 및 IPO 추진 계획
5G 섹터는 글로벌 투자가 본격화되는 2022년 하반기 회복 예상. 추천 종목은 서진시스템과 RFHIC

★ 통신업종 캘린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2	3	4 3.4GHz 주파수 추가 할당 공개 토론회	5	6	7	8
9	10	11	12	13	14	15

3 주간 뉴스

▶ SK스퀘어 · 텔레콤 · 하이닉스, 3사 연합 체제로 'Si반도체' 시장 공략 (디리렉)

- SK스퀘어, SKT, SK하이닉스, CES 2022에서 ICT 융합기술 공동 개발, 투자하는 'SK ICT 연합' 출범
- SK ICT 연합은 각 사가 반도체, 5G, AI 등 다양한 ICT 영역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내기 위해 결성
- 첫번째 행보로 3사가 500억원을 공동 출자해 AI 반도체 사피온 미국법인 설립 및 IPO 추진 계획
- ⇒ SK텔레콤은 5G, AI 분야에서 축적한 R&D 역량과 서비스 경험을 기반으로 사피온 기술 개발을 주도
- ⇒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기술과 AI 반도체 시너지 도모, SK스퀘어는 Si-Fi 투자자 유치 집중

▶ 美 통신사들 결국 5G서비스 출시 연기 (에너지경제)

- AT&T와 버라이즌 등 미국 통신사들이 5일로 예정됐던 5G 서비스 출시를 연기하기로 최종 결정
- 앞서 미 교통부와 FAA는 통신사가 공항 인근에서 5G 중대역 서비스인 C-Band를 사용할 경우
- 주파수가 항공통신에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며 서비스 출시 일정을 2주간 연기해달라고 요청
- ⇒ AT&T와 버라이즌은 지난달 5일에서 연기한만큼 서비스 출시를 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 ⇒ 교통부 장관의 압력에 따라 2주 연기하기로 합의, 이달 말 5G C-Band 서비스를 공식 출시할 계획

▶ LG유플러스, 콘텐츠 · 플랫폼사업단 신설 (전자신문)

- LG유플러스, 이덕재 전 CJ ENM 아메리카 대표를 CCO로 영입하면서 콘텐츠 · 플랫폼사업단을 신설
- LG유플러스는 컨설팅을 거쳐 콘텐츠 조직 분사나 신설 법인을 설립하는 것까지 검토 중
- 다만 현재 콘텐츠 · 플랫폼사업단 내에 어떤 사업조직을 배치할지는 확정하지 않은 상황
- ⇒ 2019년 LG유플러스는 LG헬로비전을 인수하며 5년간 각각 2.6조 1.1조원 콘텐츠 투자 계획 제시
- ⇒ 또한 작년 LG유플러스는 콘텐츠 사업 포함 2025년까지 비통신 매출 비중 30% 확대 목표 제시

▶ 3.4GHz 대역 20MHz 폭 5G 주파수 할당대가 1355억원부터 (ZD Net Korea)

- 내달 3.4GHz 대역 5G 주파수 20MHz 폭 할당 경매를 앞두고 최저 경매가격 1,355억원 책정
- 경매는 최대 50라운드의 다중라운드 오름입찰과 최고가 밀봉입찰을 진행하는 혼합 방식
- 할당 주파수는 3.4~3.42GHz 대역, LG유플러스가 5G 주파수로 쓰는 3.42~3.5GHz 인접대역
- ⇒ SK텔레콤과 KT는 효율성 측면에서 LG유플러스만 쓸 수 있는 주파수 측면에서 불공정 주장
- ⇒ 통신사들 주파수 활용 방법이 달라져 LG유플러스만 단독으로 입찰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

▶ KT, NTT-후지쯔와 5G 기지국 오픈RAN 테스트베드 구축 (디지털데일리)

- KT, NTT도코모, 후지쯔와 5G 기지국 장비 호환성을 높여주는 Open RAN 테스트베드를 구축
- Open RAN은 다양한 제조사의 기지국 장비를 상호 연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5G의 핵심 기술
- 현재까지 장비 제조사 간 가격 호환이 안돼 동일 제조사 기지국 장비끼리만 연동할 수 있는 상황
- ⇒ 향후 KT는 현재보다 진화된 오픈 RAN 기술 개발을 위해 NTT도코모와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
- ⇒ 한편 11월 말 기준 KT의 5G 가입자는 615만 7,643명으로 SK텔레콤 다음의 점유율 기록 중

▶ SK실더스, IPO 준비 착수...상장예심 제출 (ZD Net Korea)

- SK실더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에 상장예비심사 신청서를 지난 5일 제출
- SK실더스는 SK스퀘어 자회사, 사이버보안 기업 SK인포섹과 물리보안 기업 ADT캡스 통합 법인
- 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연 평균 30% 이상 매출이 증가, SK그룹 편입 3년 만에 매출이 두 배 증가
- ⇒ SK실더스는 신성장 사업 매출 비중을 2020년 34%에서 2025년 6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
- ⇒ 이에 따라 지속적인 실적 상승이 기대되며 현재 SK스퀘어가 보유한 지분은 6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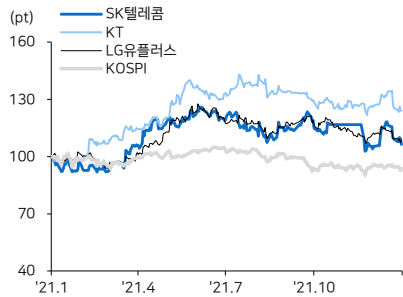
4 주요 지표

(십억달러)	종가 (통화)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BITDA		EV/EBITDA (배)		ROE (%)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한국	SK텔레콤	56,400	10.3	16.2	16.1	1.3	1.4	2.0	1.7	4.7	4.7	4.1	4.1	9.9	8.5
	KT	30,250	6.6	20.6	21.2	1.3	1.4	0.8	0.9	4.3	4.5	2.9	2.8	7.2	7.4
	LG유플러스	13,550	4.9	11.6	12.1	0.9	1.0	0.6	0.7	2.9	3.0	3.6	3.5	9.8	9.9
미국	AT&T	26.3	187.7	168.0	155.1	30.2	31.8	23.6	21.9	52.0	51.0	7.0	7.1	13.0	12.2
	Verizon	54.2	227.7	133.2	133.0	32.3	32.8	22.5	22.3	48.4	49.5	7.6	7.5	30.1	26.6
	T-Mobile	109.7	137.1	80.1	82.3	6.9	8.9	2.8	4.0	26.8	27.8	7.9	7.6	4.4	4.9
일본	NTT	3,295	103.2	108.2	104.4	15.1	15.1	8.4	9.8	29.0	28.4	6.3	6.1	10.8	14.6
	KDDI	3,524	70.2	48.5	46.8	9.6	9.2	6.0	5.8	16.3	15.7	5.4	5.3	14.5	13.8
	Softbank	5,489	81.8	50.9	52.4	49.9	6.5	37.1	11.4	50.0	N/A	5.0	N/A	39.3	13.1
중국	China Mobile	49.7	138.1	133.4	141.5	18.7	20.1	18.1	19.6	48.3	50.6	1.5	1.4	9.6	9.8
	China Unicom	4.0	15.8	51.3	54.2	2.0	2.4	2.4	2.6	15.2	15.8	0.8	0.8	4.5	5.0
	China Telecom	2.8	57.1	68.5	73.6	5.2	5.7	4.0	4.4	20.0	21.1	2.6	2.5	6.5	6.5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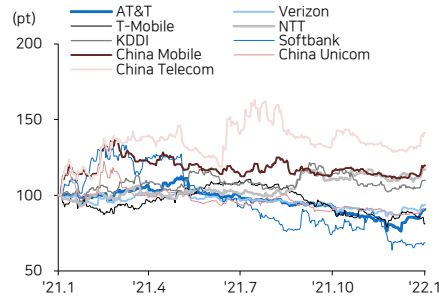
5 주요 차트

최근 1년 국내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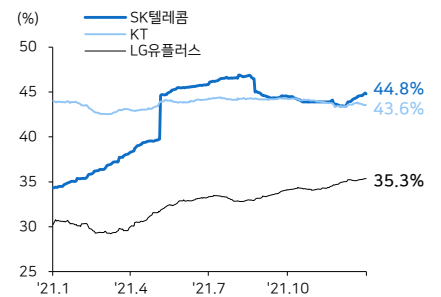
자료: WiseFn

최근 1년 해외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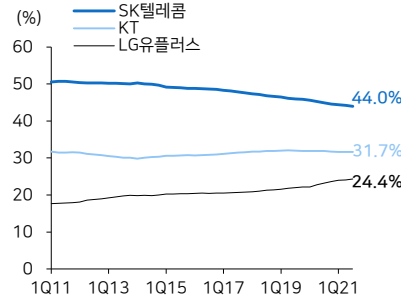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통신 3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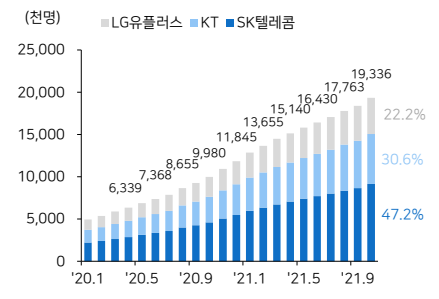
자료: WiseFn

통신 3사 이동전화 점유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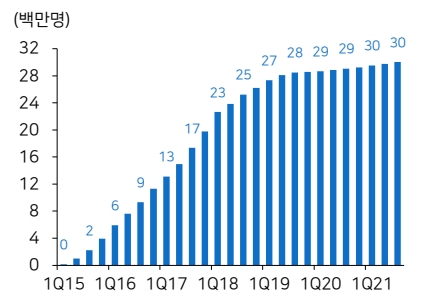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3사 5G 가입자 및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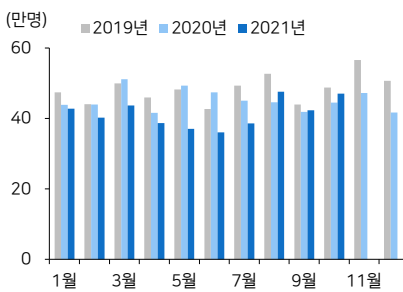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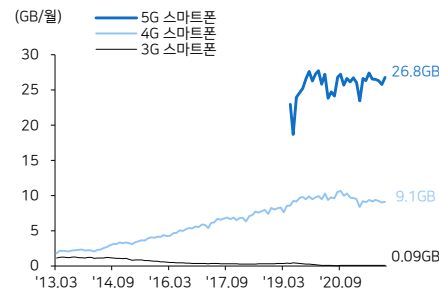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번호이동시장(MNP)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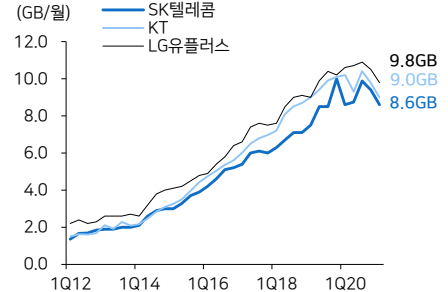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전화 단말기별 트래픽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LTE 가입자 데이터 사용량



자료: 각 사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